지옹스님은

평생을 선방수좌로 청정한 선사의 풍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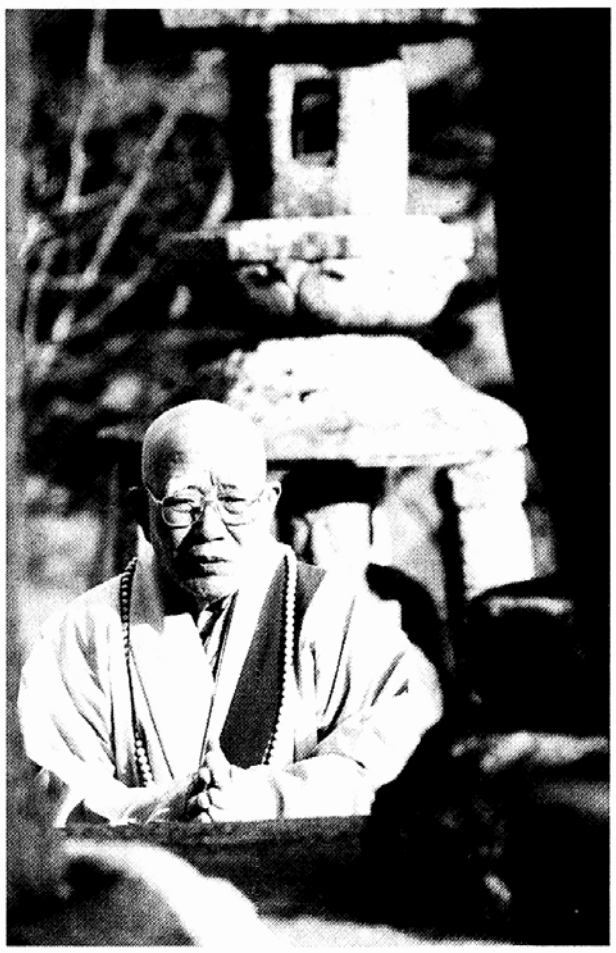
스님에게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청정한 선사의 풍모가 확연히 느껴진다. 주지 소임 한 번 맡지 않고 평생 동안을 선방 수좌로 보낸 수행 이력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겉모습만으로도 단번에 비범한 수행자임을 그냥 느낄 수 있다. 그만큼 스님은 출가 이후 평생동안 결눈질 한번 하지 않고 오로지 참선 수행에만 몰두해 온 선승이다.

화엄사 만월당에 주석하고 계시는 스님은 고희를 넘긴 노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상좌의 도움 없이 손수 자신의 옷가지를 빨면서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스님은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참선하지 않는다. 한 평 남짓한 선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면 화두를 들고 참선하며 또 졸리면 뒷산에 있는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에 올라가 기도를 한다.

스님에게는 삶과 수행이 하나다.

평소 스님은 불제자라면 승속을 막론하고 초발심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청정 계행을 지켜 용맹스럽게 수행에 매진하는 것만이 작금의 현실에서 혼탁해진 한국불교를 맑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몇 번이고 강조한다.

지옹 스님은 1925년 경북 울진에서 나서 44년 금강산 마하연에서 철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 47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70년~83년 대둔사 북암 토굴서 용맹 정진을 했다. 98년 운암사 조실을 역임했다.



"다툴일 생기면 먼저 상대 입장이 되어 보세요 저절로 화해돼요"

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도가 보이니 다시 걸망을 지고 떠나더군요. 그때 도반의 진한 정과 함께 혼자서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토굴을 지어놓고 수행할 때도 수행자의 본분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스님은 조석 예불 드리는 것을 공양하는 것처럼 결코 빼놓지 않았다. 철저히 몸에 밴 탓이지 지금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대웅전 법당으로 나와 예불을 모시고 공양 전까지 참선을 한다. 예불 거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요즘 풍토에서 스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다.

이틀날 아침 스님은 6시 아침 공양 후 1시간동안 경내를 산책한 뒤 방 뒷산에 있는 사사자삼층석탑에 올라가 40분 가량 기도를 했다. 고희를 넘긴 나이에도 주장자를 들고 비탈진 계단을 올라가는 스님의 발걸음에는 아직도 힘이 느껴졌다. 참선하다 졸음이 오면 이 효대(孝臺)의 언덕에 올라와 연기조사의 효심이 각인돼 있는 사사자삼층석탑에서 매일 정근 기도를 한다.

예전에 스님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참선을 했는데 요즘은 체력이 떨어져 피곤할 땐 약간 자리에 누워 눈을 붙이고 깨어나면 다시 화두 삼매에 든다. 이제는 몸의 근기에 따라 수행 시간이 불규칙해졌다고 하신다.

스님이 평생동안 이렇게 홀로 수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행자 시절을 엄격하게 보낸 탓이라고 일러 주신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한 사람의 수행자가 철저하게 수행 가풍을 익혀 참다운 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자 때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행자 때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은사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홀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규율이 엄격해 술을 한잔 먹고 절에 들어오면 바로 옷을 벗겨 일주문 밖으로 내쫓았지요. 또 수좌들은 여자들이 음식을 만들었다면 입에도 안되고 내버릴 정도로 청정한 계행을 지키는 데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행자들을 보면 힘들더라도 행자 때부터 철저하게 계행을 지키고 은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몸에 익히라고 당부한다.

스님의 철저한 구도 정신은 외국에까지 입소문을 통해 전해졌다. 97년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 오르스트가 스님을 미국으로 초청한 적이 있었다. 오르스트는 오로지 선불교만이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생각에서 미국에 사찰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스님을 절로 초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평생을 수행만으로 일관해온 스님이기에 소임을 맡는 일에는 문외한이라는 이유로 한사코 거절했다고 한다.

"평생 사찰 운영하는 일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는데 조건이 좋다고 그 일을 수락한다면 탐심이 생겨 안 되지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어요."

지옹 스님은 불자들에게 항상 용서하며 살기를 강조한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잘못을 합니다. 행동으로 잘못한 이도 있고, 말로 구업을 지어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잘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면 쉽게 남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것을 되갚는다면 그만큼 이승에서의 업(業)이 쌓여 내세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기보다는 이승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 업을 제거해 나가는 선행을 쌓는 것이 불제자의 도리겠지요.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 자신이 한 행동만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항상 다툴 일이 생기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럴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쉽게 타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변화하는 마음을 살피며 날마다 새롭게 되돌아볼 줄 아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 자세라는 스님은, 일생을 통해 수행을 다 못 마치면 내생에도 수행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으로 업을 갖고 태어나 어차피 주어진 죄업을 소멸해야 하는데, 수도하는 것 자체가 직업이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다시 태어나도 수행자로 태어난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불자들도 자신이 불제자가 된 것을 긍지로 알고 수행에 매진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되돌이켜 보면 실로 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을 죄업 짓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오늘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정진하길 바랍니다."

승속을 초월하고 청정 계행을 지키는 것이 수행의 출발이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불제자가 될 때 드린 약속이니 만큼 철저히 지키는 참불자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스님은 간곡히 당부한다.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현수스님

우리 사회에 있어 맏이의 개념은 참으로 크다. 책임감이 있고 모든 일을 통솔력 있게 주관하고 이끌어 가는 반면, 늘 받기만 하는 막내들에 비하면 마음도 참으로 넉넉하다. 항상 자신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덕을 흠뻑 베풀며 다른사람들에게 있어 마음의 귀의처역할을 하기도 하고 기댈수 있는 언덕이 되기도 하는 맏이, 부모가 없는 집에서는 부모 역할을 하면서 모든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이행하는 맏이. 절집에 있어서도 맏이의 역할은 대단하다.

현수 스님은 속가집에 있을 때도 맏이였으며 절집에 와서도 맏이였고, 강원생활을 할 때는 아예 '현수'라는 불명은 뒤로 하고 '백씨(伯氏) 스님'으로 통했다. 어느 처소에 가나 우리 모두의 영원한 백씨 역할을 싫은 기색 없이 해내는 스님이 현수 스님으로 항상 열린 마음의, '큰 언니'였다. 만나면 늘 푸짐하다. 자신에게는 참으로 인색하지만 아우들에게는 영원한 물주 역할을 해주고, 무엇을 요구하기 전 먼저 눈치를 채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익혀온 맏이만이 갖는 장점이다.

스님이 어디를 가나 맏이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우리들에 비해 늦은 출가 때문이다. 아버지가 안 계시기에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모두 끝내고

생각도 푸짐하고 인심도 푸짐 자기희생 아끼지 않는 '큰언니'

나서 동생의 영향을 받아 출가 했다고 한다. 스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 아우들의 눈에 차지 않는 모든 행동들을 너그러이 보아주었고 때론 정말 친언니처럼 걱정해 주었고 나무라 주었다.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스님의 그런 역할은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사람을 좋아하는 스님의 성품 때문에 늘 누군가가 스님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상담을 한다. 그 찾아 가는 한사람 한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맞이해, 내 일처럼 상담에 임해주는 큰언니의 역할은 정말 자기 희생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너그럽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하고 넘어 갈 수 있는 스님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 참으로 예리하고 날카롭다. 적당히 넘겨버릴려 하면 어느새 스님은 그것을 끄집어 내고 지적해 주며 고쳐 줄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이러한 성품 때문에 많은 스님들이 현수 스님을 의지한다.

현수 스님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한다. 그러면 스님은 이야기 하나 하나에 내 일인 듯 함께 고민하고 또 기뻐한다.

지식인이라고 자랑하는 스님들을 부끄럽게 하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늘 '나는 공부도 못했고 아는 것이 없어 남들에게 무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은근히 자신을 감추어 가는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겸손과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말 '중답게' 살려는 스님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느 해였던가, 경상도 어느 두메 산골에 있는 암자에서 기도정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던 적이 있다. 손님 접대를 위해 방앗간에 내려가서 만들어 왔다는 쑥찰떡을 내놓았는데 참으로 맛이 있어 이후에도 경상도에 가면 그 떡 맛을 혹시나 볼수 있을까 하고 기웃거려 보기도 한다. 번잡한 서울에 살면서도 스님 내면에 자리한 토속적인 향수를 늘 풍겨 주었는데, 산중 골짜기 암자에서 만난 스님의 모습은 제 옷을 제대로 입은 듯 한결 잘 어우러져 보였다.

손수 텃밭을 가꾸고 하루 사분 정근으로 자신의 깨침소리를 들을려고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 앞에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스님은 그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허물어져 가는 암자를 기도와 정진으로 반연을 만들어 제법 제 모습을 찾아 가도록 만들어 두었더니 돈 꽤나 나오는 암자로 착각한 본사의 명령을 거역 할 수가 없어 나와야 했다고 한다



스님이 나온 뒤 암자의 주지는 몇 차례 바뀌었고 스님마다 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편안하게 그저 얻어지는 것으로 착각한 본사의 주지직 이권다툼이 싫어 몇 년 나름대로 불사하고 기도한 도량을 말없이 건네 주고 나오면서 스님은 아까워 하거나 욕심내지 않았다. 부처님 도량 허물어져 가는데 먹물 옷 입고 부처님 밥 먹는 수행자가 어찌 내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만 찾겠느냐고, 나머지는 또 인연 있는 스님의 몫이라고 했던 스님.

아무리 가난한 절이라도 열심히 목탁치고 기도 잘하고 정진 잘 하면 먹는 걱정 할 것 없다고 늘 말해주던 스님, 기도의 힘도 정진의 힘도 없이 부처님밥을 그저 먹으려고 했던 몇 차례 바뀐 암주 스님들의 모습은 이 시대의 우리 불교계가 치료 해야 할 고질병 같은 것은 아닌지. 스님은 지금 동화사 가는 길목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스님을 만나고 오면 고향에 다녀 온 것 같은 푸근함과 넉넉함을 느낀다. 내 마음의 고향집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는 스님이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다. ▨ 세원사 주지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출세를 하세요!

한국 근본불교 조계종 승려 및 포교사 1기 확인 모집

Ⅰ. 승려과정

모집과정	20명 (남10, 여10명) 1년 수료과정
자 격	40세 이하, 중졸 이상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 (여권용)
모집기간	2001년 3월 30일 까지

◈ 단 기혼자는 동의서 제출

Ⅱ. 포교사과정

모집과정	20명 (남10, 여10명) 3개월, 6개월 과정
자 격	연령 학력 불문, 포교원, 철학원, 무속인 환영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 (여권용)
모집기간	2001년 3월 30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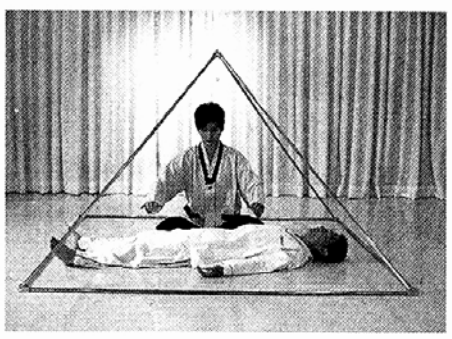
■ 모집과정 : 우리말 경전 및 의식으로 단기간내에 승려 및 포교사 자격 취득
■ 특 전 : 1. 본 대학 수료 후 중단내 사찰에서 100% 수용
2. 입학금 교무금 의식주 일체 무료,
단 포교사는 의식비 월 10만원
■ 문의전화 : 033)671-7751~3 팩스 : 671-7754

한국 근본불교 조계종 종립 근본불교 승가대학

기공.힐링.명상.자연치유센터 다클리닉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당신의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당신의 의문은 풀리지 않을것입니다.
몸,마음,영혼의 정화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최고의 상담가에게 전생,현생의 의미와 목적을 들어보십시요.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요.



프로그램 안내

@리딩(Reading)요법
전문카운셀러가 상담자의 기운과 영혼의 파장 감지하여 상담자의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각성.

@전생퇴행요법
전생퇴행으로 몸과 마음의 정화와 의식의 확대 인간관계 해결등, 많은 문제 해결과 영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습니다.

@힐링(Healing) 막히고 울체 되어 있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치유력을 극대화
@영능력개발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여 초감각 개발 및 힐링에너지개발.
@치유기공 활.기공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
@소명수련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깨닫게하는과정

다클리닉 강남센터:02)3218-7611 여의도센터:02)786-2333
광주센터:062)366-1533
홈페이지주소 http:www.dahnclinic.co.kr
(원장님과직접 상담가능)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및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강 대 진 합장